



스위스 웨딩 포토 스팟.

로컬들에게 인기 많은 웨딩 포토 스팟

허니문 중 따라가 볼만한 포토 스팟들
 유람선 위에서, 알프스 고갯길 위에서
 계곡 속에서, 꽃밭 속에서
 만년설을 배경으로, 호수를 배경으로

허니문으로 인기 많은 스위스에서 결혼의 설레임을 가장 잘 기록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사진일테다. 작품 사진 부럽지 않은 허니문 사진을 남기기 위해 최근에는 현지에서 전문 사진작가에게 포토 세션을 맡기는 시간을 갖는 커플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전문 작가에게 맡기는 트라이포드에 맡기든 가장 중요한 것은 포토 스팟이다. 답은 간단하다. 스위스 로컬들이 찾는 웨딩 포토 스팟을 참고하면 된다. 스위스 커플들이 찾는 특별한 웨딩 포토 스팟을 소개한다.

1. 유람선

봄부터 가을까지는 선상 웨딩이 인기다. 특히 루체른 유람선에서는 옥빛 호수와 주변으로 펼쳐지는 알프스 산과 아기자기한 호반 마을이 풍경 안에 가득 담겨 무척 스위스다운 배경을 보장해 준다.

2. 계곡

스위스는 빙하 지대가 많은 만큼 특이한 지형도 많다. 이런 독특한 지형은 특별한 배경을 만들어 준다. 특히 스위스 동부에 있는 라인 계곡(Rheinschlucht)은 기괴한 암벽이 감탄을 자아내고, 천혜의 알프스 자연이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어 이색 포토 포인트가 되어 준다.

3. 알프스 고갯길

직접 자동차를 운전해 스위스의 내밀한 풍경까지 즐길 수 있는 스위스 그랜드 투어(Grand Tour of Switzerland)로 알프스 고갯길을 달리다 풍경 좋은 곳에 내리면 그 곳이 바로 최고의 포토 포인트다. 특히 굽이진 고갯길로 유명한 푸어카 패스(Furka Pass)에 있는 호텔 벨베데레(Hotel Belvedere) 앞은 낭만 그 자체다.

4. 알프스 만년설

스위스에서 보내는 허니문인 만큼 알프스 봉우리를 빼 놓을 수 없다. 특히, 한 여름에도 하얀 눈을 기대할 수 있는 스위스에서는 새하얀 풍경 속 포토 포인트를 찾아볼 수 있다. 생모리츠(St. Moritz) 근교의 무오타스 무라글(Muottas Muragl)이나 루체른 근교의 티틀리스(Titlis), 체르마트(Zermatt)의 마테호른 글래시어 파라다이스(Matterhorn Glacier Paradise)에서는 한 여름에도 눈 풍경을 만날 수 있다.

5. 꽃밭

스위스에서도 꽃밭은 웨딩 포토 장소로 인기다. 그 중, 봄이면 화려하게 피어나는 아이리스 정원으로 유명한 뷰이유렁(Vullierens) 성은 로컬들에게도 인기다.

6. 축제의 현장



특별한 오브제가 되어주는 축제의 현장을 찾아 보아도 좋다. 샤토데(Château-d'Ex)에서는 매월 1 일 열기구 축제가 열린다. 하늘 위로 한꺼번에 날아 오르는 열기구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기 좋은데, 축제 기간이 아닐 때에도 열기구 탑승 체험이 가능한 곳이므로 포토 세션을 함께 하기 좋다.

7. 호반

어딜 가도 만날 수 있는 스위스의 호수는 웨딩 포토에서도 특별한 장소임이 틀림 없다. 호숫가를 달리며 '나 잡아봐라' 사진을 찍어 봐도 재미있는 추억이 되어 줄 것이다. 생모리츠(St. Moritz)나 취리히(Zürich), 루체른(Luzern), 몽트뢰(Montreux) 호반은 아름다운 산책로로 유명하다.

자료제공: 스위스 정부관광청 www.MySwitzerland.co.kr